



김25 작가가 오는 29일부터 6월 22일까지 부산 스페이스 원지에서 'WAVE'를 주제로 전시를 연다. 작품명 'Cast a Spell'

'문자와 기호를 매개로 변화무쌍한 바다를 재해석하다.'

평소 우리가 보는 바다는 푸른빛이다. 심연의 바다는 검푸르지만 일상의 바다는 대체로 푸르다. 여름 날 백사장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온통 청색이다. 눈이 시리게 반짝이는 에메랄드 빛은 낭만과 여유를 준다.

그러나, 김25 작가(김이오)가 상징하는 바다는 기존의 관념을 전복시킨다. 그가 펼친 화폭의 바다는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빛깔이 뒤섞여 있다. 분노처럼 일렁이는 화폭의 바다는 낭만이나 힐링과 같은 바다에 대한 일련의 긍정적인 사유를 뒤엎는다.

김25 작가가 바다를 모티브로 부산에서 전시(29일~6월 22일)를 연다. 바다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스페이스 원지에서 펼쳐는 이번 전시 주제는 'WAVE: Cast a spell'.

'파도를 넘다', '주문을 외다'라는 의미처럼 작가는 시적 감성을 투영해 바다를 신화적으로 재해석했다. 하늘과 조우하며 빛과 음영의 신비로운 대비를 이루는 바다는 역동적이면서도 변화무쌍하다.

전시를 앞두고 14일 만난 김 작가는 "그동안 바다가 발현하는 다채로운 감성, 영속성 등을 구현하는 작업을 해왔다"면서 "이번에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발 비껴나 생성과 소멸을 매개로 바다를 신화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했다.

이번 출품작은 모두 40여 점. 10호부터 300호 대작에 이르는 작품들은 기존의 작품과 신작들이 고루 포함돼 있다.

전시장 스페이스 원지는 과거 선박용품 창고로 사용되던 건축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곳이다. 부산 영도의 과거 산업구조를 고스란

히 간직한 장소적 기억 위에 자리잡고 있다. 높은 층고는 물론 넓은 규모, 선박을 연상하게 하는 인테리어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전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실제 바다가 있다는 점도 이색적이다.

작가는 이번 작품들은 손가락, 손바닥 등을 활용해 '몸으로 그렸다'고 했다. 또한 드로잉 용구를 활용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모더니즘 회화를 좋아한 나머지 너무 오랫동안 개념적 그림을 그렸는데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작가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출렁거렸을 것 같다. 타성이나 진부함은 작가들이 경계해야 하는 가장 두려운 '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지속해온 '노아의 방주'는 점차 신화적인 범주로 확장돼왔다. 추상적 색면과 구상적 이미지를 조화시킨 작품들은 독창적인 조형의 아우라를 발한다. 화려한 색채와 질풍노도의 파도가 겹쳐진 '화폭의 바다'는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수렴된다.

김 작가는 "문자와 기호를 매개로 바다를 철학적이거나 신화적인 범주로 확장하고자 했다"며 "바다와 하늘의 공간적 배경을 토대로 시각과 청각 그리고 언어적 감각들을 다채롭게 작품에 투영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흐르는 파도는 잘나의 감성에 서정과 서사를 덧입혀 완성됐다. 작품에서 '모비딕', '노인과 바다'와 같은 고전이나 기호학자 소쉬르의 언어 이론, 성경 속 신화들이 중층적으로 읽히는 것은 그런 연유다.

강선화 미술평론가는 "문자를 형상으로 덧씌운

'파도를 넘다' '주문을 외다'

김25 작가, 부산서 'WAVE' 전 29일~6월22일...바다의 날 기념 문자·기호, 다채로운 색감으로 40여 작품 생성·소멸 바다 구현



김25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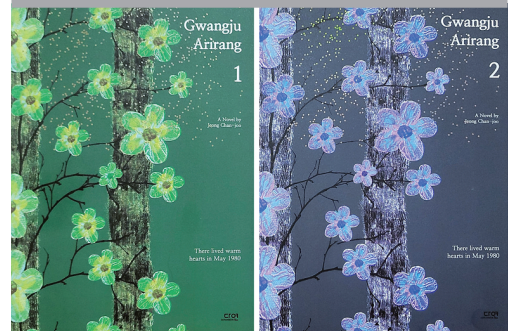
물감의 덩어리, 그것은 의미가 아니라 생성의 덩어리다"며 "그가 손가락으로 그리는 촉감의 직접성, 현재라는 몸, 물질로서 몸, 물질이 관념으로 전환은 상투적인 개념과 이미지 내부에서 상투성을 넘어서서 내재하고 있는 힘, 물질의 생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고 평한다.

한편 김 작가는 홍익대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으며 아트 마이애미 두바이 아트페어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했다. 서울 금산갤러리 소속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아의 방주'



정찬주 장편다큐소설 '광주아리랑' 영문 출간

정찬주 작가의 장편다큐소설 '광주 아리랑' (전 2권·사진)이 최근 영문으로 출간됐다.

이에 앞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과 광주일보 창사 68주년을 기념해 2020년 국문으로 발간된 '광주아리랑'은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광주

5·18을 노동자와 빈민들의 관점에서 다뤄 형식으로 풀어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31회까지 본지에 연재됐으며 이후 책으로 출간됐다.

이번 영영 작업은 최용배가천대 겸임교수와 양향자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상임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는 올해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려 어느 해보다 광주정신과 5·18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5·18광주정신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의 권리, 불의에 맞선 저항정신으로 구현했다.

연재를 하는 동안 작가는 "마치 호랑이한테 물어뜯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다"며 회고한 바 있다. 그러한 가혹함은 소설을 쓰는 동인이자 책무로 다가왔을 터였다.

소설은 항쟁에 가담했던 광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팩트를 기반으로 상상력을 가미해 형상화했다. 80년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광주의 실상을 옴니버스 형식을 차용해 담아낸 것이다. 무엇보다 영웅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주위의 평범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서술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 작가는 이번 영영판 출간에 대해 "나눔과 대동정신의 5·18광주정신이 광주를 넘어 전 세계로 외연이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소설 번역본이 그러한 과정에서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찬주 소설가



'심청전' 밴드음악을 입다

광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퓨전국악밴드 '밴드날다'의 '심청날다'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 제공>

퓨전국악밴드 '밴드날다', 30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흥겨운 무대가 펼쳐진다. 퓨전국악밴드 '밴드날다'의 '심청날다' 공연이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 주최하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2025년 두번째 '콘서트IN북구' 공연이자,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된 우수작이다.

'심청날다'는 고전 심청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스토리텔링 콘서트로, 전통 판소리의 서사에 밴드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결합했다.

'해지나침방', '동동동 내 딸', '소녀심청' 등 심청전의 주요 대목을 평크, 소울, 블루스 같은 현대적인 음악 장르와 결합해 색다르고 신선한 감각으로 풀어낸다.

소리꾼들의 재치 있는 재담과 상황극, 생생한

연기는 극의 재미를 한층 끌어올리고, 한국 무용과 상모돌리기 등 전통 퍼포먼스가 함께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입체적이고 몰입감 있는 무대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을 진행하는 밴드날다는 판소리 보컬 오단해, 서진실을 중심으로 색소폰, 드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 퍼커션까지 8인조로 구성된 팀으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음악으로 주목받고 있다.

북구문화센터 문화운영팀 문나리 담당은 "이번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고전은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국악의 새로운 매력을 전할 것"이라며 "퓨전국악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1만원, 티켓링크·네이버예약.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프레젠티무용단 '몬더그린 이펙트' 광주무용제 대상

프레젠티무용단에 대한 무용협회광주광역시지회(무용협회 지회·지회장 오윤환)가 주관한 제34회 광주무용제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수상작은 '몬더그린 이펙트(Mondegreen Effect)'.

13일 무용협회 지회에 따르면 제34회 광주무용제에서 프레젠티무용단(안무 김현재)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연기상은 프레젠티무용단의 김민경, 김경현에게 돌아갔다. 솔로부문 대상은 이동진이 수상했다.

수상작 '몬더그린 이펙트'는 낯선 외국어 발음을 익숙한 모국어처럼 잘못 인식하는 현상을 주제로, 낯설고 익숙함, 본질과 왜곡, 감정과 관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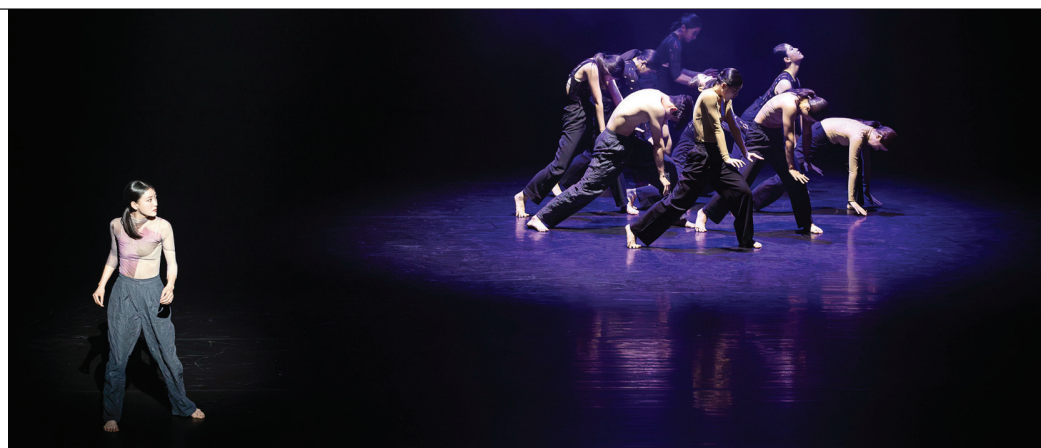
혼란 등을 신체 언어로 풀어낸 작품이다.

심사위원단은 "섬세하고 유연한 움직임과 뛰어난 표현력이 인상적이었다"며 "주제 해석과 전달이 명확했고, 자유로운 움직임 속에서도 질서가 느껴졌다"는 평을 내놨다.

이번 경연에는 '댄스컴퍼니Sun&Friends', '에뚜왈발레단', '김유진댄스프로젝트', '황체는 무용단'이 참가했다.

대상을 차지한 프레젠티무용단은 오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제34회 전국무용제에 광주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오윤환 무용협회 지회장은 "광주무용제에 참여



수상작 '몬더그린 이펙트(Mondegreen Effect)'

한 모든 팀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다"며 "전국무용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무등을 그리다'

의재미술관, 6월 1일 사생대회

의재미술관은 오는 6월 1일 '무등을 그리다' 사생대회를 연다.

이번 사생대회는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QR코드로 스캔 후 구글폼을 통해 가능하다.

그림은 무등산 문민정사 입구부터 중심사 입구까지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을 주제로 의재 허백련의 뜻을 기리고 지역 문화유산을 창작의 소재로 예술의 가치를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총 32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며,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로 나눠 시상한다. 매화상, 난초상, 국화상, 대나무상 등으로 나누며, 각각 문화상품권과 상장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재미술관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선옥 관장은 "이번 사생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무등산의 자연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지역 미술의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며 "무등산에 담긴 역사와 의미, 가치 등에 관심이 많은 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